

임창용 2억 오른 5억

KIA 연봉협상 완료...인상 31명·동결 6명·삭감 8명
‘158% 인상’ 서동욱 1억5천만원...노수광 126.7% ↑



KIA 타이거즈가 2017년 재계약 대상자 45명과 연봉 협상을 마무리했다.

인상자는 31명이며, 동결 6명, 삭감 8명으로 기대했던 ‘훈풍’은 불지 않았다는 평가다.

지난 시즌 전전후 활약으로 5년 만의 가을잔치에 힘을 보탠 서동욱, 김주형과 ‘안방마님’ 이흥구는 프로 데뷔 후 처음 역대 연봉자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서동욱은 5800만원에서 158.6% 오른 1억5000만원, 김주형은 5500만원에서 100% 인상된 1억1000만원에 각각 재계약을 마쳤다. 이흥구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42.9% 인상되면서 역대 고지를 밟았다.

선발은 물론 불펜에서도 역할을 해준 홍건희는 4500만원에서 100% 인상된 9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마운드의 샷별’ 김윤동은 2700만원에서 74.1% 인상된 4700만원에 계약을 끝냈다. 최고참 최영필도 1000만원(7.7%)이 인상되면서 1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베테랑 김광수도 1억에서 1000만원(10%) 인상됐다. 후반기 필승조로 맹활약한 한승혁은 7000만원에서 500만원(7.1%)이 인상됐다.

연봉 협상 테이블에도 ‘타고투저’의 바람이 불면서 마운드의 인상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런 만큼 가장 눈에 띄는 인상자는 ‘마무리’ 임창용이다. 임창용은 3억원에서 66.67%가 뛰어오른 5억원에 재계약을 하며 대비가 됐다.

지난해와 올 시즌 임창용의 입지와 상황이 다르다는 게 구단의 이야기다. 임창용은 지난해 원정도박 혐의로 시즌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으며 반쪽짜리 시즌을 보냈

다. 하지만 올 시즌은 제약 없이 풀 시즌을 보낼 수 있는 만큼 144경기에 대한 연봉을 제시, 대폭 인상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야수진에서는 외야수 노수광의 연봉이 30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뛰어오르며 126.7%의 인상률을 찍었다. 3년차 김호영도 6000만원에서 3500만원(58.3%) 인상된 9500만원에 사인했다. 오준혁은 900만원(27.27%)으로 4200만원, 윤정우는 1100만원(37.93%) 상승한 4000만원이다. 와일드 카드 결정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포수 한승택도 2700만원에서 14.8% 인상된 3100만원에 재계약했다.

‘아기 호랑이’ 최원준은 두 번째 시즌에서는 400만원 인상된 3100만원을 받는다. ‘예비역’ 안치홍과 김선빈은 각각 2억2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동결됐지만 홍재호(3700만원·8.82%인상), 최병연(3300만원·10%인상), 고장혁(4300만원·10.26%인상) 등 내야진들은 인상된 연봉에 계약을 했다.

연봉 고과 1위인 ‘신입 주장’ 김주찬은 5억에서 20% 상승한 6억원에 합의했다. 김주찬과 함께 예비 FA인 투수 김진우는 지난 시즌 재할·부상으로 15이닝 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동결된 1억2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좌완 고효준도 8000만원으로 동결됐다.

한기주와 광정철은 긴 재할을 끝내고 극적인 순간을 만끽하기도 했지만 연봉 삭감자가 됐다. 한기주는 6500만원에서 6000만, 광정철도 5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깎였다.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한 좌완 심동섭도 1억4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21.43% 삭감됐다. 외야수 김원섭(9000만원), 신종길(9800만원), 김다원(6000만원)도 삭감된 연봉에 도장을 찍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 최다승 황제가 돌아왔다

〈남자 단식 18회〉

로저 페더러가 지난 2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라파엘 나달을 3-2로 제압하고 4년 6개월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눈물을 글썽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더러, 호주오픈 제패

4년 6개월만에 메이저 우승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17위·스위스)가 메이저 대회 남자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18회로 늘렸다.

무릎부상을 털고 코트에 복귀한 페더러는 지난 2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000만 호주달러·약 440억원)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라파엘 나달(9위·스페인)을 3-2(6-4 3-6 6-1 3-6 6-3)로 제압했다.

이로써 페더러는 2012년 윌블던 이후 4년 6개월 만에 메이저 대회 단식 정상에 복귀했다. 우승 상금은 370만 호주달러(약 32억5000만원)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남자단식 최다 우승 기록은 페더러의 18회다. 페더러는 이날 우승을 포함해 호주오픈 5회, 프랑스오픈 1회, 윌블던 7회, US오픈 5회씩 우승을 차지했다. 4대 메이저 가운데 3개 대회에서 모두 5회 이상 우승한 것은 페더러가 처음이다.

3시간 37분이 걸린 대접전이었다. 페더러는 1세트를 6-4로 따내며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했지만 2세트부터 포핸드 샷이 번번이 라인 밖으로 향하면서 고비마다 점수를 허용했다.

결국 4세트까지 2-2로 맞선 페더러와 나달의 결승전은 5세트에서 승부가 갈렸다. 페더러는 4세트가 끝난 뒤 오른쪽 허벅지 근육 통증 때문에 메디컬 타임아웃을 써야 했다. 코트에 돌아온 페더러는 5세트 초반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주면서 게임스코어 1-3까지 끌려갔다. 5살 어린 나달이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넘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페더러의 놀라운 반격이 시작됐다. 페더러는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킨 뒤 이어진 나달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게임스코어 3-3을 만들었다. 기세가 오른 페더러는 이어진 세 게임마저 연달아 따내며 ‘황제의 부활’을 선언했다.

페더러가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나달을 꺾은 것은 2007년 윌블던 이후 올해가 10년 만이다.

지난해 코트를 잠시 떠났던 페더러는 이달 초 비공식 대회인 호프먼컵을 통해 몸을 풀었다. 공식 대회로는 지난해 윌블던 이후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른 페더러는 “사실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고 기뻐했다. 1981년생으로 올해 만 35세인 페더러는 1972년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켈 로즈웰(호주)의 37세 이후 최고령 메이저 남자단식 챔피언이 됐다. /연합뉴스

‘러 귀화’ 전남 프롤리나 女바이애슬론 동계체전 金

귀화한 러시아 출신 여자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동계체전에서 전남에 소중한 금메달을 안겼다.

3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바이애슬론경기연맹 소속 안나 프롤리나(33)는 지난 29일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사진경기 방식으로 열린 제 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여자 일반부 스프린트 7.5km부문에서 23분 49초로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안나 프롤리나는 지난 2015년 3월 법무부의 특별 귀화 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말부터 전남바이애슬론경기연맹에 소속돼 전남 대표로 동계 체전에 출전했다. 안나 프롤리나는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의 2011~2012시즌 월드컵 4차대회 스프린트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27)도 지난 28일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개인경기 15km에서 47분 24초의 기록으로 금메달

을 목에 걸었다. 에바쿠모바도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뒤 올해 전남 바이애슬론경기연맹 소속으로 대회에 나서 금메달을 안겼다.

에바쿠모바는 러시아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지난 2014년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인경기 은메달, 2015년 하계세계선수권대회 혼성계주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귀화를 결심했다.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바이애슬론경기연맹이 전남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데도 이들을 전남 대표로 영입한 데는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선구안’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김상욱 전남바이애슬론경기연맹 전무이사는 국가대표 코치의 경력을 살려 이들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여 사 훈련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전남대표로 영입, 동계체전에서 성과를 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지울기자 dok2000@

‘젊은 피’ 왕정훈, 유러피언투어 3승

코머셜뱅크 카타르 마스터스 연장 우승...세계 39위로 도약

왕정훈(22)이 유럽프로골프 투어 코머셜뱅크 카타르 마스터스(총상금 25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왕정훈은 2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도하 골프클럽(파72·7400야드)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4라운드에서 야코 반 질(남아공), 조아킵 라거그렌(스웨덴)과 연장전을 벌인 끝에 개인 통산 3승에 성공했다.

왕정훈은 연장 첫 번째 홀인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낚아 파에 그친 반 질과 라거그렌을 제치고 지난해 5월 모리셔스 오픈 이후 8개월 만에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앞선 4라운드에서 왕정훈은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적어냈다. 나흘만 합계 16언더파 272타.

3라운드까지 중간합계 15언더파 201타로 2위 그룹에 3타를 앞선 왕정훈은 이날 누구보다도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실제로 왕정훈은 이날 1·2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다. 그러나 왕정훈은 더 이상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2위 그룹에 1타 차로 추격을 허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왕정훈은 14번 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단독 선두 자리를 날려 버리며 위기를 자초했다.

왕정훈은 1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등 이번 대회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던 16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단독 선두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왕정훈은 17번홀(파3)에서 다시 보기를 기록했다.

18번홀에서 다시 버디 찬스를 잡았지만, 불발되면서 연장 승부가 시작됐다.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왕정훈은 침착함을 되찾고 연장 첫 홀에서 우승에 성공했다.

2017년 첫 대회인 지난해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에서 11위에 오른 왕정훈은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올 시즌의 전망을 밝혔다.

왕정훈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환상적인 기분이다. 이번 주에 우승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왕정훈이 29일 카타르 도하의 도하 골프클럽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 투어 코머셜뱅크 카타르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놓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LPGA 개막전

태극낭자 3연패 불발

디펜딩 챔프 김효주 9위

브리트니 린시킴(미국)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7시즌 개막전 우승을 차지했다.

린시킴은 30일 북동미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오션클럽 골프코스(파73·664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총상금 140만 달러) 마지막 날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26언더파 266타의 성적을 낸 린시킴은 렉시 톱슨(미국)과 함께 연장전에 들어갔다. 약전후 속에 진행된 연장전의 승자는 린시킴이었다. 4라운드에서 버디를 잡은 18번 홀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린시킴은 다시 버디를 기록하며 파에 그친 톱슨을 따돌렸다.

2015년 4월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 이후 1년 10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 정상에 다시 오른 린시킴은 투어 통산 7승째를 기록했다. 우승 상금은 21만 달러(약 2억4000만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김효주는 최종합계 18언더파 274타,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 개막전에서 최근 2년 연속 우승했지만 올해에는 승전보를 전하지 못했다. 세계 랭킹 29위 에리아 쭈타누건(태국)은 9언더파 283타로 공동 4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롯데, 5강 이상 목표로 달라질 것”

주장 이대호 입단식 가져

선수 생활의 종착지로 고향팀을 선택한 ‘빅보이’ 이대호(35·롯데 자이언츠)는 “5강 위를 목표로 중심을 잘 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이판에서 개인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이대호는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입단식에 겁먹지 않은 얼굴로 등장했다.

그는 “롯데는 언젠가는 돌아와야 할 팀이고, 팬들을 위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몇 년 지나서 돌아오면 팬들도 지지 있을 것 같았다”고 롯데 복귀를 설명했다.

롯데는 이대호의 합류로 단숨에 5강 후보로 올라섰다. 이대호는 5강 이상을 목표

로 잡았다.

이대호는 “올 시즌 개인 성적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5강 위를 목표로 달라지는 롯데가 될 수 있도록 감독님과 잘 얘기해보겠다”며 “내가 제일 잘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후배들도 따라온다. 두 배로 운동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대호는 “과거에는 무서운 선배였지만 부드러운 선배가 되겠다. 후배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고를 졸업하고 2001년 롯데 유니폼을 입은 이대호는 롯데 구단의 상징적인 존재다.

/연합뉴스